

+찬미 예수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 사순 첫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 재의 수요일로 시작된 사순시기는
악과 투쟁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우리도 악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힘을 기르는 중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악마에게 유혹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유혹,
천세와 영광에 대한 유혹,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보라는 유혹…….
당신의 능력을 보란듯이 보여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악마의 집요한 유혹을
이겨 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흔들어대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좀더 벌자는 유혹, 좀더 즐기자는 유혹,
좀더 오르자는 유혹, 좀더 갖자는 유혹…
그러나 주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들도 확고한
소명의식과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마음에 새긴다면
그러한 유혹들은 분명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삼십육계 곧 즐행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악의 유혹을 이기는 데는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즉 유혹의 기회를 아예 피하는 것이
악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책입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 부딪쳐 이기기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이제 주님은 바로 나를위한 수난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골고타 언덕을 오르려 하시는
주님의 확고한 사명과 의지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유혹으로부터 힘껏 도망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해보며 사순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을 크나 큰 그릇을 준비하는
한 주일이 되십시오.

주님의 사랑 안에서

토마스